

# 광주시장 “도서관 붕괴 사고원인조사 협조” TF가동한다

“시민들에게 큰 심려 끼쳐 죄송”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전력”  
“시발주 주요건설현장 51곳 등 점검”  
“희생자피해보상·장례자문·생활지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차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한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강 시장은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차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희생자 수습이 완료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부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사의 시공·감리·발주 전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살피고 법의 잣대가 아닌 시민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개선하겠다”며 “같은 원칙으로 시가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 51곳과 민간 건설현장까지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 피해보상과 유가족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세심히 챙길 것”이라며 “시공사·유가족과 함께 장례 법률 자문, 긴급 생활지원,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강 시장은 사고 원인 추정 등을 묻는 질문에 수사당국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공사 재개 또는 철거 시점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공기를 무리해서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관계부서장이 나서 오히려 늘어났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당초 예정 공사 기간은 12월이었다. 기존 공동수급사가 경영 악화로 빠진 뒤 구일종합건설이

도맡는 과정에서 3개월이 연장됐다”며 “계약상 계약을 할 때 중단된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에 맞는 공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부서는 공기에 맞도록 관리하는 임무가 있다”며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시 서구 차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매몰됐고 모두 사망했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지구 옛 상무소 각장 부지(1만200㎡)에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이다. 총 사업비는 당초 392억원(국비 157억원·시비 235억원)이었으나 자재값 상승과 공기 지연 등으로 516억원(국비 157억원·시비359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전광춘 기자



광주 남구, 공공시설·주택건설 사업장 ‘점검, 또 점검’

## 김병내 구청장 “중대재해 예방” 거듭 강조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 및 건설 현장의 구조적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최근 점검을 완료한 관내 공공시설물 공사 현장과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긴급 재점검에 나섰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 비롯해 관내에서 진행 중인 건설 현장에 대한 재점검을 긴급 지시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거듭 강조했다.

남구는 이 일련에서 소관 부서장을 긴급 소집한 뒤 오후 3시 30분부터 구청 1층 열린민원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관내 공공시설물 공사 현장과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논의했다. 먼저 공공시설물 공사는 국민체육센터와 시간유체국 신축, 백운광장 공

영주차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대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구 소신장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진월동 고압송전탑 이설까지 7곳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공사장은 지난 9월부터 12월 3일까지 안전 점검을 이미 끝마친 상태로, 해당 공사장에 대한 재점검은 다음 주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주택건설 사업장은 남양휴튼 3차와 두산위브 트레지움,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SK VIEW, 진월 더리브 라포레, 봉선동 르네트 2차 5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들 공사장은 지난 11월말에 현장 점검이 완료된 상태다.

이후 사업장은 지난 12월 11일에 1차 재점검을 진행했으며, 다음 주부터 추가 현장 점검이 진행될 계획이다. /임채일 기자

광주 동구는 지난 11일 제7회 국회 자살예방 대상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동구가 추진해 온 정신응급 위기대응체계 구축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국회 자살예방 대상’은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관한 행사로 전국 지자체의 자살 예방 정책활동 등의 사업 성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동구는 정신 응급 위기 상황에 신속하

## 동구, 국회 자살예방 대상 우수 지자체 특별상 수상 정신 응급 위기 대응체계 구축 노력 인정

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곧바로 입원이 가능해 적기에 치료를 받고,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고위험군 조기 발굴, 자살 고위험자 및 서비스 거부자 비대면 집중 관리, 생명 사량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안전한 동구를 위하여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수상을 발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더욱 촘촘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은 1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청춘 자서전 출판 기념회 및 내 생애 첫 책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천동 장년층이 직접 집필한 자서전과 신생아들이 선물 받은 첫 책과 함께한 모습을 한자리에 모아 ‘세대가 함께 만드는 책마을의 한 페이지’를 주제로 꾸며졌다.

동천동은 마을 BI(Brand Identity)인 ‘다독다독 책마을’에 따라 책과 교육을 중심으로 마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

## 서구 동천동, BI 활용 책으로 세대공감 청춘 자서전 출판·내 생애 첫 책 사진전 개최

히 2023년부터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집에 책과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생애 첫 책’ 사업을 이어왔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전국 유일 동 단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주목받기도 했다.

올해는 독서문화 사업 대상을 장년층까지 확장해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글로 기

록하는 ‘청춘 자서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살아온 날을 글로 적다보니 잊고 지냈던 순간들이 떠올라 문득했다”며 “내 이야기가 책으로 남는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재 동천동 주민자치회장은 “장년층의 삶과 신생아의 시작이 함께하는 이 행

사를 통해 동천동이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마을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천동 작은도서관은 지난 4월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5 도서관의 날’ 기념식에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독서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석우 기자

## 전남도, 청년 지역정착 성과 공유 ‘청년마을 FESTA’ 성료 지역탐색·일거리 실험·관계 맺기 등 청년마을사업 비전 논의

전라남도는 12일 목포미시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청년마을 페스타(FESTA)’를 열어 청년이 지역에서 추진한 탐색·창업·정착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정착 비전과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삼성물산 사회공헌단, ‘강한 소상공인’ 출신 청년마을 멘토단 2명, 청년마을 14개소와 예비 청년마을인 청년공동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으로 청년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일거리 실험·지역사회 관계 맺기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행사에서는 각 청년마을이 운영한 지역탐색 프로그램, 청년주도 기획행사, 지

역민 교류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시도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참가 청년들은 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 지역사회와의 관계 확장, 정착 준비 과정 등을 설명했다.

현장에 마련된 청년마을 부스에서는 청년기획 굿즈, 지역민과 함께 만든 상품·콘텐츠, 지역 정착 준비 창업 아이템 등을 전시해 청년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도는 2026년 신규 청년마을을 조성해 청년이 살고 일하며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미래 주역은 청년이고, 청년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며 “전남도가 청년의 든든한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